

쇠고기 이력제

쇠고기 이력제 시·도 관계기관·단체 업무협의회 실시



<협의회 전경>

지난 1월 14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쇠고기 이력제 시·도, 관련 기관·단체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회가 있었다. 협의회에서는 사육단계에서의 신속한 신고·등록 농가의식 제고 필요성 등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 및 지자체, 관련기관 등과 상호 협력 등이 논의되었다.

서울지역

농협중앙회, 축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본격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2014년 개장을 목표로 대구 모 축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농협 축산지원부에 따르면 오는 3월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 의뢰한 축산물유통물류센터 편익 분석 및 사업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해 빠르면 2012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 현재 축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예정지로는 부천 오정물류유통단지가 유력하며, 1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측은 축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비의 50~70% 정부 보조, 400억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도 50% 가량은 정부가 용자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농식품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앙회가 축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데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돈

육 등 국내 축산업의 생존을 위해선 생산·유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 대규모 유통물류센터를 설치해 전국 단위의 수급조절 및 판매시스템을 구축, 공판장 등 지역유통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수급조절 및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센터 내에 대형 유통업체가 상주하는 사무실을 마련해 EDI(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직접 지역에 소재하는 유통업체 매장에 납품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축산물 플라자, 하나로마트 등 축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농협의 축산물 소매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지역

용인시, 축산물 브랜드 육성 24억원 지원

경기도 용인시가 축산물브랜드 육성을 위해 한우람(한우), 성산한방포크(돼지), 용인백옥골(양봉) 등 3개 분야에 24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한우람 브랜드 육성을 위해 TMI 사료공장 시설확충, 한우 반추위 활성 생균제 28톤을 지원한다. 성산한방포크 육성을 위해서는 성산한방포크 판매장 증축, 인공수정센터 시설개선, 기능성 한약재 담미사료 200톤, 우수종돈 인공수정비 9천600

팩, 돈육 진공수축포장재 90만매, 냉장수송차 1대, 1만8천두에 대한 고급육 생산장려금, 30여두의 우수종돈 구입비, 800두 모돈 갱신비 등을 지원한다.

**(주)팜스토리 본사 이전**

(주)팜스토리(대표이사 조훈희, 구 해자람푸드)는 물류센터 신설운영에 따라 기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61번지 3층에 위치한 본사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11-3번지로 이전했다. 전화번호와 팩스는 종전과 동일하다. 문의 031-719-1393

**강원지역**

**강원도, 2010년 HACCP 조기추진**

강원도는 축산물 HACCP 인증 확대를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관리하고자 올해 HACCP 컨설팅 지원대상 업체 중에서 3개 업체(사육단계 2, 판매단계 1)를 경쟁 입찰로 선정했다. 도는 이와 관련 "선정업체에서는 농가(업체)에 대한 영업자·종업원에 대한 교육,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위해요소분석, 허용한계치 설정 등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HACCP 인증시 학교·단체 급식, 군납 등에 우선 납품대상이며 유기축산과 연계한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인한 대형마트 납품 등 유리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HACCP 지도지원사업은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7년부터 축산 농가 및 축산물판매업 57개소에 개소당 800만원씩 총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0년 22개소에 1억7천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횡성군, 횡성한우 품질인증제 본격 개시**

유명 한우브랜드육인 강원도 횡성한우고기가 '품질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횡성군수가 인증하는 횡성한우고기 품질인증은 ▲거세 ▲암소 ▲비거세 ▲횡성산 한우고기 등 4가지도 각각 구분돼 라벨이 부착된다. 횡성군(군수 한규호)은 지난 1월

20일 강원도 원주시 소로면 의관리 소재 의관아이푸드(대표이사 이광호)에서 '횡성한우 품질인증 개시 선포식' 및 '횡성한우 품질인증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HACCP 등 위생적이고 첨단시설을 갖춘 의관아이푸드 내 품질인증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횡성한우고기 전용 1차 가공장으로 지정해 관계자를 상주시키기로 했다. 또한 품질인증센터는 개체확인, 생산 이력시스템조회 등 1차 인증대상을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횡성군은 판매단계에 있어서도 ▲품질인증품 차별화 유통 ▲전문취급점 지정 및 운영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제주지역**

**제주시, 축산물 브랜드 글로벌화에 272억 지원**

제주시는 한우산업 육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통한 제주산 축산물 브랜드 글로벌화, 양질의 조사로 생산기반 등 총 83개 사업에 272억5천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청정우유생산을 위한 낙농산업 육성,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제주산 돼지고기 냉품화 육성, 축사시설 현대화, 신성장 동력 마필산업 육성 등 33개 사업에 122억2천600만원을 투자한다. 가축전염병 'Free Zone' 제주구축 및 상시유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16종, 브루셀라병 및 돼지질병청정 강화, 소독시설, 동물등록제 확대 등 13개 사업에 24억2천200만원을 투자한다. 제주축산물 브랜드 글로벌화를 위해 HACCP 육가공 지원, 학교 우유공급확대, 쇠고기 이력시스템 구축,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계란집하장, 마제품 판매장 시설 등 13개 사업에 16억400만원을 지원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 가축분뇨 부산물 공급, 축산사업장 냄새 저감확대, 축산환경(냄새·해충)개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부존자원(감굴박)을 이용한 사료화 시설 등 24개 사업에 110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